

6·3 지선...참일꾼 찾자

〈3〉광주시·전남도교육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 교육감의 재선 도전 속에 다수의 도전자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교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4년의 비전을 둘러싼 치열한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단일화 여부와 부동산 향배, 교육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본지는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정책,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후보 단일화·부동층이 승부 가른다 ‘실력 광주·직함·사법 리스크’ 쟁점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에 맞서 3명의 입지자가 경쟁하는 4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정선(66) 현 교육감에 맞서 김용태(61)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2013~2014)과 오경미(62)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63)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2015~2018)이 최근 출마를 선언하고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정선 현 교육감이 내세운 ‘다양한 실력’의 성적표를 두고, 수성을 노리는 현직과 변화를 부르짖는 도전자들 간의 사활 건 승부가 전개될 전망이다.

선거전의 핵심 화두는 단연 ‘실력 광주’의 회복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3년여간 기초학력 강화, ‘365 스테디가페’,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무형 정책을 통해 광주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한 800억원대 국비 확보와 직업계고 재편 등 가시적인 행정 성과 역시 재선 가도의 든든한 발판이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 4년이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4년은 광주교육이 세계로 뻗아가는 결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현직 교육감으로서의 행정 경험은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는다.

반면 도전자들은 이 교육감 체제에서의 ‘인사 잡음’과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과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시절부터 누적된 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면서도 현직 교육감의 도덕성과 행정 투명성을 정조준하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전자 진영에서는 “현 교육청의 성과 홍보는 부풀려진 것이 많고, 실제 교육 현장의 갈등은 심화됐다”고 비판하며 심판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청 내부의 인사 불만과 소통 부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현직 교육감의



이정선 김용태 오경미 정성홍

이정선 재선 도전...김용태·오경미·정성홍 ‘반 이정선 연대’ 현직 ‘다양한 실력’ 정책 평가...도전 후보들 완주 가능성도

‘일방향 행정’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결집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의 강력한 ‘현직 프리미엄’을 깨기 위해 김용태·오경미·정성홍 출마예정자 간의 단일화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들은 시민공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 단일화’ 대오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특히 김용태 후보의 여론조사 직함 사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단일화 대오의 최대 불안 요소다. 특정 직함에 따른 지지율 변동이 갈등의 씨앗이 되면서 후보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여기에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일부 흡수하고 있는 오경미 후보의 존재감도 변수다. 오 후보의 지지 기반이 진보 진영과 완전히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단일화가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후보들의 정책 대결은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을 기치로 대입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정비와 수업 혁신의 완성을 약속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사다리’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교대 총장을 거쳐 2022년 직선 4기 교육감으로 당선된 그는 지난 3년여 동안 ‘실력 광주’의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업계고 재편을 통한 취업 성과와 특성화고 활성화, 대입 지원 체계 정비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에 맞서는 김용태 전 지부장은 ‘함께 사는 세상, 사람을 키우는 광주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12월 23일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지부장은 광주전자공고 교장 이력과 함께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 다양한 학생·노동·사회운동 경험도 갖고 있다.

오경미 전 국장도 광주 최초의 ‘여성 교육감’, ‘엄마의 마음’과 ‘전문가의 눈’을 강조하며 지난 12월 29일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오 전 국장은 36년 동안 교사·교장, 장학사·장학관·시교육청 과장 등을 역임하며 얻은 친화력·소통·업무 능력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성홍 전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출마예정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하고 표발을 다지고 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하는 정 전 지부장은 36년간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과 핀란드·일본 등지에서 배운 선진·혁신교육에 힘쓴 교육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21.86%의 득표율을 얻었다.

교육감 선거 특유의 무관심은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요동치게 할 변수다. 정당 공천이 없는 탓에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과 정책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인지도가 높은 현직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현직의 실무 능력’과 ‘도전자들의 개혁 의지’가 부딪히는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부동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광주교육의 향후 4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김대중 독주 속 교육계 6인 도전장 ‘글로벌 교육’ 정책 송곳 검증 예고

전남도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선거도 전남교육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수장을 뽑기 위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대중(64) 현 교육감과 이를 저지하려는 도전자 6인이 맞붙는 ‘1강 다자’ 구도로 출발하고 있다. 도전자 그룹은 강숙영(63) 교육학 박사, 고두갑(60) 목포대 교수, 김해룡(60)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승태(62)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 장관호(58)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64) 전 한국교총 부회장 등이다.

현재까지의 지형은 현직 프리미엄을 보유한 김대중 교육감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는 전국 최초의 학생교육수당 도입, 2030 교실 운영,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전남교육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농산어촌 유학 정책과 작은학교 특성화 정책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대안적 교육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상대 후보들은 기초학력 성취도 저하와 청렴도 평가 부진 등을 거론하며 ‘내실 없는 전진행정’이라는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에 맞서는 6명의 후보군은 각기 다른 경력과 강점을 앞세워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강숙영 교육학 박사는 38년간 교사와 교장, 장학관을 거친 현장 전문가로서 ‘전남 첫 여성 교육감’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한다. 섬세한 소통 행보를 통해 교권 회복과 디지털 혁신 교육 등을 약속하며 학부모 층을 파고들고 있다.

고두갑 목포대(경제학과) 교수는 교육과 지역 경제를 융합한 ‘교육경제 전가문’을 자처한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자체와 연계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동부권의 탄탄한 지지세를 기반으로 한다. 장학관과 교육장을 거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중심, 교실 중심’의



김대중 강숙영 고두갑 김해룡



문승태 장관호 최대욱

도전자들, 현직 프리미엄 넘어설 정책·공약 개발 ‘총력’ 진보진영 단일화 여부, 동부·서부권 세 결집 최대 변수

안정적인 교육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은 초·중·고교 교사는 물론 교육부 중앙 행정과 대학을 두루 거친 화려한 이력이 강점이다. 자·산·학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교육부 재직 시절 다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남 교육의 중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문 부총장은 2015년 교육부 재직 당시 진로체 협치원단 구성과 진로체험 인증제 도입 등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진보 진영의 핵심 후보로서 선명성을 강조한다. 그는 현 체제의 교육 행정이 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하며, 학생과 교사가 주인이 되는 ‘교육참여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며 판세 변화의 키를 쥐고 있다. 최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현 김대중 교육감 체제와의 선명한 차별화를 선언했다.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은 중도·보수 성향의 교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거문교 교장 출신으로 교사들의 행정 업

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후보 단일화’다. 다자 구도로 갈 경우 김 교육감의 낙승이 예상되지만,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단일 후보가 도출될 경우 현 교육 행정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더불어 현직 심판론 등이 맞물리는 양상으로 흐름 가능성이 있다.

지역적 구도도 무시할 수 없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의 보이지 않는 세 대결은 전남 선거의 고질적인 변수다. 후보들의 출신 지역과 활동 기반에 따라 표심이 갈리는 가운데, 어느 후보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도농 복합 교육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6월 선거는 김대중 교육감이 강조하는 ‘글로벌 교육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도전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인물에 의한 교육 혁신’이냐를 두고 전남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글로벌